

##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어휘 학습 활동에 대한 비판적 고찰

—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강보선 대구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한 논문임

- I. 머리말
- II. 교과서별 어휘 학습 활동의 유형과 실태 분석
- III. 목표 층위에서의 어휘 학습 활동 분석
- IV. 내용 층위에서의 어휘 학습 활동 분석
- V. 교수·학습 방법 층위에서의 어휘 학습 활동 분석
- VI. 맺음말

## I. 머리말

본고는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이하 2015 교과서)를 대상으로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어휘 학습 활동이 지니는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어휘능력이 국어능력의 기초라는 점에서 학습자의 어휘능력을 향상하는 것은 국어교육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학습자의 어휘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하겠으나, 자연스러우면서도 손쉬운 방법 중 하나가 국어 교과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국어교육 현장에서 교과서는 여전히 교수·학습의 주요 매개체로서, 국어 수업은 주로 교과서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어 교과서가 학습자의 어휘능력을 향상하는 데 효과적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학습자들은 국어 교과서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휘능력을 기르게 된다.<sup>1)</sup>

---

1) 이충우(1996)에서도 어휘교육은 국어 교과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어휘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구현되려면 교과서가 잘 편찬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국어 교과서에서 학습자의 어휘능력을 향상하는 방식<sup>2)</sup>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동안 국정 교과서 체제에서는 주로 읽기 단원을 중심으로 낱개와 처마 등에 어휘<sup>3)</sup>의 뜻을 풀이하여 왔다(신명선, 2005: 210). 그러나 낱개와 처마에서 어휘의 의미를 단순히 제시하는 방식으로는 학습자의 어휘능력을 향상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휘 학습 활동을 교과서에서 명시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sup>4)</sup>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검정 교과서 체제의 국어 교과서에서는 어휘 학습 활동란을 따로 두어 어휘를 효과적으로 교수·학습하려는 노력들이 좀 더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sup>5)</sup>

교과서는 학습자의 어휘능력을 직접적으로 향상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교과서의 방식을 따라 어휘를 학습하도록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게

---

2) 대표적으로 다음 4가지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신명선, 2008; 구분관·신명선·서혁·이도영·민병곤·김봉순 외, 2014 참조).

- ① 별도의 '어휘' 교과서를 개발하거나 '학습 어휘 목록집'을 제작하여 어휘를 독립적으로 가르치는 방식
  - ② 제재 안에서 학습 어휘를 색이나 글꼴, 첨자 등으로 표시하고 낱개나 처마에서 해설하는 방식
  - ③ 어휘와 관련된 단원을 독립적으로 설정하는 방식
  - ④ 단원마다 어휘 학습 활동을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방식
- 3) 낱개와 처마에서는 주로 '단어'가 풀이된다는 점에서, 여기에서는 '어휘'보다는 '단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문맥에 자연스럽게 의미 전달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단어'와 '어휘'를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독해의 흐름을 고려하여 혼용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물론 '단어'와 '어휘'를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문맥에 맞게 구분하여 사용한다.
- 4) 교과서에서 어휘 학습 활동을 명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박형우(2012: 417)에서도 강조된 바 있다. 그는 학습자의 이해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단어들을 정리하여 간단히 목록을 보이고 이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첨부하여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는 어휘교육의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어휘 학습 활동을 명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학습자가 교과서의 어휘 학습 활동을 통해 어휘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되며, 어휘 학습 경험을 통해 다른 어휘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학습자 스스로 어휘 확장을 해 나갈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고의 입장과 동일하다.
- 5) 국정 교과서인 7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서도 '쉽터'란에 어휘의 어원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쉽터'란의 성격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어휘 학습 활동란'이라고 볼 수 없다.

된다. 따라서 교과서의 어휘 학습 활동란은 학습자의 어휘능력을 직·간접적으로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어휘교육 이론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과서 집필 및 검정 기준에 어휘 학습 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에<sup>6)</sup> 어휘능력을 향상하는 데 부적절하거나 편향된 어휘 학습 활동으로 구성된 교과서가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고에서는 2015 교과서<sup>7)</sup>의 어휘 학습 활동이 어휘교육적 타당성과 적절성을 지녀야 한다는 전제하에, 2015 교과서의 어휘 학습 활동을 다양한 층위에서 분석하여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고찰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II장에서는 2015 교과서에 제시된 어휘 학습 활동의 유형과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논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III장에서는 어휘교육의 목표 층위에서, IV장에서는 어휘교육의 내용 층위에서, V장에서는 어휘교육의 교수·학습 방법 층위에서 교과서 어휘 학습 활동을 분석하여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지금까지 교과서의 어휘 학습 활동과 관련된 구체적 논의가 어휘교육 내에서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휘 학습 활동을 실증적,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한 본고의 연구 결과는 교과서의 어휘 학습 활동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6) 지침의 부재로 인해 어휘 학습 활동란이 없는 교과서도 존재한다. 본고의 분석 대상이 된 9종의 교과서 중 2종의 교과서도 어휘 학습 활동란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구본관 외(2014: 382)에서는 교과서에 어휘 학습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어 교과서 검정 기준에 매 단원에 단위 관련 어휘 학습을 넣도록 권고하는 것이 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7) 본고에서는 중학교 1학년 교과서들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출판사마다 학년별 교과서의 집필진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1학년 교과서의 문제점은 다른 학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 II. 교과서별 어휘 학습 활동의 유형과 실태 분석

이 장에서는 교과서별 어휘 학습 활동의 유형과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2015 교과서의 어휘 학습 활동이 지닌 문제점을 고찰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 1. 교과서별 어휘 학습 활동의 수

2015 교과서를 대상으로 어휘 학습 활동을 제공하고 있는 부분의 명칭과 어휘 학습 활동의 수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교과서별 어휘 학습 활동란의 명칭과 어휘 학습 활동의 수

교과서	어휘 학습 활동란의 명칭	어휘 학습 활동의 수		
		1학기	2학기	계
A	어휘력 높이기	16	13	29
B	어휘력 키우기	12	12	24
C	어휘 학습	8	8	16
D	우리말 톡톡	9	9	18
E	어휘력 키우기	4	4	8
F	어휘력 기르기 <sup>8)</sup>	10	8	18
G	어휘와 놀기	4	4	8
H	-	-	-	-
I	-	-	-	-

- 8) F 교과서에서는 ‘어휘·어법’란을 설정하고 그 안에 ‘어휘력 기르기’와 ‘어법 익히기’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어휘 학습 활동과 관련된 ‘어휘력 기르기’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표 1〉을 보면, 9종의 교과서 중 2종(H, I)의 교과서는 별도의 어휘 학습 활동란이 없다. 어휘 학습 활동란이 있는 교과서의 경우, 대단원마다 어휘 학습 활동란을 설정하였는지, 소단원마다 어휘 학습 활동란을 설정하였는지<sup>9)</sup>에 따라, 그리고 한 단원에서 몇 개의 어휘 학습 활동을 제시하였는지에 따라 어휘 학습 활동의 수가 교과서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 2. 교과서별 어휘 학습 활동의 유형과 실태

어휘 학습 활동란을 설정한 7종의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각 교과서의 어휘 학습 활동을 간략하게 유형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교과서별 어휘 학습 활동의 유형

교과서	단원 <sup>10)</sup>	어휘 학습 활동
A	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어와 그 뜻을 연결하기</li> <li>•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기</li> </ul>
	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어와 그 뜻을 연결하기+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기<sup>11)</sup></li> <li>• 단어와 그 뜻을 연결하기</li> </ul>
	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어와 그 뜻을 연결하기</li> <li>•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기</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기</li> <li>• 맞춤법에 맞는 단어를 고르기</li> </ul>

9) B, E, G 교과서는 대단원마다 어휘 학습 활동란을 설정하였고 A, C, D, F 교과서는 소단원마다 어휘 학습 활동란을 설정하였다.

10) ‘학기-대단원(소단원)’ 순으로 표시하였다. 예를 들어, ‘1-1(1)’은 1학기 1단원의 소단원(1)에서 다루어진 어휘 학습 활동이라는 의미이다.

11) 이 활동은 ‘(1)~(3)의 뜻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골라 급훈을 완성해 보자’라는 활동으로, 뜻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고르기(단어와 그 뜻을 연결하기)와 급훈을 완성하기(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기)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활동이다. 이처럼 한 활동에 두 가지의 소활동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로 연결하여 표시하였다. 이하 동일.

A	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뜻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회상하기</li> <li>• 맞춤법에 맞는 단어를 고르기</li> </ul>
	1-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어를 어종별로 나누기</li> <li>• 외래어표기법에 어긋난 단어를 찾기+외래어표기법에 맞게 단어를 고치기</li> </ul>
	1-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기</li> <li>• 뜻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회상하기</li> </ul>
	1-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기</li> <li>• 단어의 뜻을 말하기</li> </ul>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용 표현(속담)과 그 뜻을 연결하기</li> <li>• 관용 표현(속어)과 그 뜻을 연결하기</li> </ul>
	2-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뜻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회상하기</li> <li>• 관용 표현(속어)을 활용하여 문장 만들기</li> </ul>
	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뜻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회상하기</li> </ul>
	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어와 그 뜻을 연결하기</li> <li>• 맞춤법에 맞는 단어를 고르기</li> </ul>
	2-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어와 그 뜻을 연결하기</li> <li>• 맞춤법에 맞는 단어를 고르기</li> </ul>
	2-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어와 그 뜻을 연결하기</li> <li>• 단어를 소리 내어 읽기+단어의 올바른 발음을 고르기</li> </ul>
B	2-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어와 그 뜻을 연결하기</li> <li>• 관용 표현(속담)과 그 뜻을 연결하기</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어와 그 뜻을 연결하기</li> <li>• 단어와 그 뜻을 연결하기</li> <li>• 관용 표현(속담)을 찾기+관용 표현의 뜻을 쓰기</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어와 그 뜻을 연결하기</li> <li>•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기</li> <li>• 제시된 단어의 반의어를 찾기+단어의 뜻을 찾아 쓰기</li> </ul>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뜻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회상하기</li> <li>•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기</li> <li>• 단어와 그 뜻을 연결하기</li> </ul>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어와 그 뜻을 연결하기</li> <li>•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기</li> <li>• 관용 표현(속어)의 뜻을 쓰기+관용 표현을 활용하여 문장 만들기</li> </ul>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어와 그 뜻을 연결하기</li> <li>•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기</li> <li>• 제시된 단어의 순화어를 찾기</li> </ul>



B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어와 그 뜻을 연결하기</li> <li>•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기</li> <li>• 단어를 사전에서 찾기+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쓰기</li> </ul>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어와 그 뜻을 연결하기</li> <li>•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기</li> <li>• 두 단어의 뜻이 합쳐져 생겨난 단어를 빈칸에 쓰기</li> </ul>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뜻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회상하기</li> <li>•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기</li> <li>• 접두사와 그 뜻을 연결하기+접두사가 포함된 단어를 더 찾아보기</li> </ul>
C	1-1(1)	• 관용 표현(한자 성어, 속담)과 그 뜻을 연결하기+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관용 표현을 넣기
	1-1(2)	• 단어의 뜻을 확인하기+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기
	1-2(1)	• 단어의 뜻을 확인하기+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기
	1-2(2)	• 단어의 뜻을 확인하기+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기
	1-3(1)	• 단어의 뜻을 확인하기+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고르기
	1-3(2)	• 한자와 그 뜻을 연결하기+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기
	1-4(1)	• 단어와 그 뜻을 연결하기+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기
	1-4(2)	• 단어의 뜻을 확인하기+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기
	2-1(1)	• 단어의 뜻을 확인하기+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고르기
	2-1(2)	• 관용 표현(속담)과 그 뜻을 연결하기+관용 표현과 그 상황을 연결하기
	2-2(1)	• 단어의 뜻을 확인하기+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기
	2-2(2)	• 단어의 뜻을 비교하기+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고르기
	2-3(1)	•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기+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기
	2-3(2)	• 관용 표현(속어)의 뜻을 확인하기+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관용 표현을 넣기
	2-4(1)	• 단어와 그 뜻을 연결하기
	2-4(2)	• 제시된 단어의 반의어를 찾기+두 단어의 뜻 차이를 고려하여 문장 만들기
D	1-1(1)	• 맞춤법에 맞는 단어를 고르기
	1-1(2)	• 뜻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회상하기
	1-1(3)	• 문맥 속 단어의 뜻을 이해하기
	1-2(1)	• 맞춤법에 맞는 단어를 고르기

D	1-2(2)	• 관용 표현과 그 뜻을 연결하기
	1-3(1)	• 단어와 그 뜻을 연결하기
	1-3(2)	• 맞춤법에 맞는 단어를 고르기
	1-4(1)	• 맞춤법에 맞는 단어를 고르기
	1-4(2)	• 뜻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회상하기
	2-1(1)	• 단어와 그 뜻을 연결하기
	2-1(2)	• 맞춤법에 맞는 단어를 고르기
	2-1(3)	• 맞춤법이 틀린 단어를 찾기+맞춤법에 맞게 단어를 고치기
	2-2(1)	• 맞춤법이 틀린 단어를 찾기+맞춤법에 맞게 단어를 고치기
	2-2(2)	• 뜻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회상하기
	2-3(1)	• 뜻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회상하기
	2-3(2)	• 맞춤법에 맞는 단어를 고르기
	2-4(1)	• 맞춤법에 맞는 단어를 고르기
	2-4(2)	• 맞춤법에 맞는 단어를 고르기
E	1-1	• 뜻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회상하기
	1-2	• 뜻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회상하기
	1-3	• 뜻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회상하기
	1-4	• 단어와 그 뜻을 연결하기
	2-1	• 단어와 그 뜻을 연결하기
	2-2	• 뜻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회상하기
	2-3	• 뜻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회상하기
	2-4	• 뜻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회상하기
F	1-1(1)	• 문맥 속 단어의 뜻을 이해하기
	1-1(2)	• 단어와 그 뜻을 연결하기
	1-2(1)	• 단어와 그 뜻을 연결하기
	1-2(2)	• 단어와 그 뜻을 연결하기
	1-3(1)	• 단어의 뜻을 확인하기+단어와 그 뜻을 연결하기

F	1-3(2)	• 단어의 뜻을 추측하기+단어와 그 뜻을 연결하기
	1-4(1)	•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관용 표현(속담)을 넣기
	1-4(2)	• 단어와 그 뜻을 연결하기
	1-5(1)	• 단어와 그 뜻을 연결하기+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기
	1-5(2)	•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기
	2-1(1)	• 단어와 그 뜻을 연결하기
	2-1(2)	• 단어와 그 뜻을 연결하기
	2-2(1)	• 단어와 그 뜻을 연결하기
	2-2(2)	• 단어와 그 뜻을 연결하기
	2-3(1)	• 단어와 그 뜻을 연결하기
	2-3(2)	• 단어와 그 뜻을 연결하기
	2-4(1)	• 단어와 그 뜻을 연결하기
	2-4(2)	• 제시된 단어와 순화어를 연결하기+제시된 단어에 해당하는 더 좋은 순화어를 찾기
G	1-1	• 단어와 그 뜻을 연결하기
	1-2	• 단어와 그 뜻을 연결하기
	1-3	• 단어와 그 뜻을 연결하기
	1-4	• 단어와 그 뜻을 연결하기
	2-1	• 단어와 그 뜻을 연결하기
	2-2	• 단어와 그 뜻을 연결하기
	2-3	• 단어와 그 뜻을 연결하기
	2-4	• 단어와 그 뜻을 연결하기+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고르기

이번에는 교과서별로 어느 유형의 어휘 학습 활동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7종의 교과서를 통해 귀납적으로 도출한 어휘 학습 활동 유형을 기준으로 삼아 각 교과서에 해당 유형의 활동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3〉 교과서별 각 어휘 학습 활동의 유무

어휘 학습 활동	A	B	C	D	E	F	G	계
(1) 관용 표현과 그 뜻을 연결하기	√							1
(2) 관용 표현과 그 상황을 연결하기			√					1
(3) 관용 표현을 찾기 <sup>12)</sup>		√						1
(4) 관용 표현을 활용하여 문장 만들기	√	√						2
(5) 관용 표현의 뜻을 쓰기		√						1
(6) 관용 표현의 뜻을 확인하기			√					1
(7) 단어와 그 뜻을 연결하기	√	√	√	√	√	√	√	7
(8) 단어의 뜻을 말하기	√							1
(9) 단어의 뜻을 비교하기	√							1
(10) 단어의 뜻을 추측하기						√		1
(11) 단어의 뜻을 확인하기			√					1
(12) 단어를 사전에서 찾기 <sup>13)</sup>		√						1
(13) 단어를 소리 내어 읽기	√							1
(14) 단어를 어종별로 나누기	√							1
(15)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기			√					1
(16)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쓰기		√						1
(17) 단어의 올바른 발음을 고르기	√							1
(18) 두 단어의 뜻이 합쳐져 생겨난 단어를 빈칸에 쓰기		√						1
(19) 두 단어의 뜻 차이를 고려하여 문장 만들기			√					1
(20) 뜻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회상하기	√	√		√	√			4

12) ‘비유를 활용한 속담을 찾아보고, 그 뜻을 써 보자.’라는 활동의 앞 부분을 유형화한 것이다. 뒷 부분은 ‘(5) 관용 표현의 뜻을 쓰기’로 유형화하였다.

13) 이 활동은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개념이나 조건에 해당하는 단어 자체를 사전에서 찾는 활동이라 ‘(15) 단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기’ 활동과는 구별된다.

(21) 맞춤법에 맞는 단어를 고르기	✓			✓				2
(22) 맞춤법이 틀린 단어를 찾기				✓				1
(23) 맞춤법에 맞게 단어를 고치기				✓				1
(24) 문맥 속 단어의 뜻을 이해하기				✓		✓		2
(25)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고르기			✓				✓	2
(26)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관용 표현을 넣기			✓			✓		2
(27)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기	✓	✓	✓			✓	✓	5
(28) 관용 표현을 찾기		✓						1
(29) 외래어표기법에 어긋난 단어를 찾기	✓							1
(30) 외래어표기법에 맞게 단어를 고치기	✓							1
(31) 접두사와 그 뜻을 연결하기		✓						1
(32) 접두사가 포함된 단어를 더 찾아보기		✓						1
(33) 제시된 단어와 순화어를 연결하기						✓		1
(34) 제시된 단어에 해당하는 더 좋은 순화어를 찾기						✓		1
(35) 제시된 단어의 반의어를 찾기		✓						1
(36) 제시된 단어의 순화어를 찾기		✓						1
(37) 한자와 그 뜻을 연결하기			✓					1
계	13	14	10	6	2	7	3	

〈표 3〉에서처럼 2015 교과서의 어휘 학습 활동 유형을 최대한 상세히 구분하면 40가지에 가까운 유형이 도출된다.<sup>14)</sup> 이들 활동 유형 중 7종의 교과서에서 모두 다루어진 활동은 ‘(7) 단어와 그 뜻을 연결하기’ 활동이며,

14) 어휘 학습 활동을 어떻게 범주화하느냐에 따라 그 숫자는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어휘 학습 활동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최대한 상세하게 구분하였다. 예컨대 (8)번부터 (11)번 활동은 단어의 뜻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지만 ‘말하기’, ‘비교하기’, ‘추측하기’, ‘확인하기’는 서로 다른 인지적 수행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는 활동이라고 보아 구분하였다.

‘(27) 문장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넣기’ 활동과 ‘(20) 뜻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회상하기’ 활동은 각각 5종과 4종의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 세 활동은 교과서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는 활동이지만, 나머지 대다수의 활동들은 한두 교과서에서만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교과서별로 어휘 학습 활동의 유형을 보면, B 교과서가 14개의 활동 유형을 다루고 있는 반면, E 교과서는 단 2개의 활동 유형만을 다루고 있어 교과서 간의 편차가 큼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검정 교과서 체제에서는 학습자가 특정 교과서만 학습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모든 교과서의 어휘 학습 활동은 학습자의 어휘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2015 교과서의 어휘 학습 활동은 교과서 간 편차가 크고, 교과서마다 비슷한 성격의 어휘 학습 활동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이에 2015 교과서의 어휘 학습 활동이 학습자의 어휘능력을 향상하기에 적절한지,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지를 어휘교육의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의 층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III. 목표 층위에서의 어휘 학습 활동 분석

이 장에서는 어휘교육의 목표와 관련하여 어휘 학습 활동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하여 1절에서는 어휘교육의 목표에 연동하여 어휘 학습 활동의 성격을 살펴보고, 2절에서는 이를 토대로 교과서의 어휘 학습 활동이 지닌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 1. 어휘 학습 활동의 두 성격: 이해 활동과 표현 활동

어휘교육의 목표는 어휘능력의 향상으로 수렴된다. 어휘능력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겠지만,<sup>15)</sup> 어휘능력은 그 성격에 따라 ‘어휘 이해 능력’과 ‘어휘 표현 능력’으로 구분될 수 있다(신명선, 2004 ㄱ; 구본관, 2011 나; 강보선, 2013; Nation, 2013). 따라서 어휘 학습 활동도 어휘 이해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과 어휘 표현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전자를 ‘어휘 이해 학습 활동’으로, 후자를 ‘어휘 표현 학습 활동’으로 명명한다. 즉, 학습자는 어휘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어휘 이해 학습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어휘 이해 능력을 향상하게 되고, 어휘 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어휘 표현 학습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어휘 표현 능력을 향상하게 된다.

목표 층위에서 어휘 학습 활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2015 교과서의 어휘 학습 활동 중 어떤 활동이 어휘 이해 학습 활동이고, 어떤 활동이 어휘 표현 학습 활동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교과서에 제시된 어휘 이해 학습 활동의 예를 살펴보자.

다음은 ‘비’를 표현하는 우리말이다. 뜻풀이에 해당하는 낱말을 찾아 알맞게 연결해 보자.

- |                                |   |   |     |
|--------------------------------|---|---|-----|
| (1) 이슬비보다는 굵으나 가늘게 내리는 비.      | • | • | 먼지점 |
| (2) 비가 겨우 먼지나 날리지 않을 정도로 조금 옴. | • | • | 가랑비 |
| ...(하략)...                     |   |   |     |

〈그림 1〉 어휘 이해 학습 활동의 예 1 (A 교과서, 1학기 129쪽)

15) 어휘능력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는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신명선(2017)에서는 어휘능력에 대해 언어(지식) 중심 관점, 인지 중심 관점, 맥락 중심 관점, 성향 중심 관점, 소통 중심 관점에서 개념화할 수 있음을 논한 바 있다.

〈그림 1〉의 활동은 단어의 뜻과 해당하는 단어를 연결하는 활동으로서, 단어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어휘 이해 학습 활동에 속한다.<sup>16)</sup> 어휘 이해 학습 활동은 활동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에서와 같이 어휘와 그 뜻을 맥락 없이 제시하기도 하지만, 어휘를 문맥 내에서 제시(〈그림 2〉 참조)하기도 하고, 어휘의 뜻과 예문을 함께 제시(〈그림 3〉 참조)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된다. 그러나 이들 활동은 근본적으로 어휘의 뜻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어휘 이해 학습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sup>17)</sup>

**밑줄 친 단어와 그 뜻을 바르게 연결해 보자.**

- |                               |   |   |                              |
|-------------------------------|---|---|------------------------------|
| (1) 나는 그의 말에 화가 <u>치솟았다</u> . | • | • | ㉠ 위쪽으로 힘차게 솟다.               |
| (2) 코뿔소가 얼룩말을 <u>치받았다</u> .   | • | • | ㉡ 감정, 생각, 힘 따위가 세차게 복받쳐 오르다. |
- ...(하략)...

〈그림 2〉 어휘 이해 학습 활동의 예 2(A 교과서, 1학기 41쪽)

**다음 단어와 그 뜻을 바르게 연결해 보자.**

- |            |   |   |  |
|------------|---|---|--|
| (1) 현황(現況) | • | • | ㉠ 일을 처리하거나 해결하여 나갈 방법이나 계획.<br>예) 이 문제의 해결 □ □ 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 |
|------------|---|---|--|
- ...(하략)...



〈그림 3〉 어휘 이해 학습 활동의 예 3(A 교과서, 2학기 183쪽)

다음으로 교과서에 제시된 어휘 표현 학습 활동의 예를 살펴보자.

- 
- 16) 참고로 본고에서는 이 활동을 ‘(7) 단어와 그 뜻을 연결하기’ 활동으로 유형화하였다(〈표 3〉 참조).
- 17) 어휘 이해 학습 활동이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는 활동만 있는 것은 아니다. 어휘의 발음, 표기, 구조 등 다양한 지식을 이해하는 활동이 존재하지만 본고에서는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의미 이해 활동을 예로 보인 것이다.



〈보기〉의 관용 표현을 넣어 짧은 글짓기를 해 보자.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f8d7da;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빙산의 일각</p> <p>대부분이 숨겨져 있고 외부로 나타나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아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p>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d4edda;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깨가 쏟아지다</p> <p>몹시 아기자기하고 재미나다.</p> 
--	---

- (1) \_\_\_\_\_
- (2) \_\_\_\_\_

〈그림 4〉 어휘 표현 학습 활동의 예(A 교과서, 2학기 95쪽)

〈그림 4〉의 활동은 관용 표현을 활용하여 짧은 글짓기를 해 보는 활동으로서, 관용 표현을 글에서 적절하게 표현하도록 하였다. 점에서 어휘 표현 학습 활동에 속한다.<sup>18)</sup>

어휘 표현 학습 활동도 어휘 이해 학습 활동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뜻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회상하기’ 활동이 상대

18) 〈그림 4〉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관용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 활동에는 어휘 이해 활동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 활동의 지시문에 근거할 때 이 활동이 추구하는 방향은 어휘 표현이다. 활동의 지시문이 “관용 표현을 넣어 짧은 글짓기를 해 보자”임을 볼 때 이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습자로 하여금 관용 표현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 표현을 글에서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어휘 표현 활동인 것이다. 만약 활동의 지시문이 ‘다음 관용 표현의 뜻을 이해하고, 관용 표현을 넣어 짧은 글짓기를 해 보자’였다면 어휘 이해 활동과 어휘 표현 활동을 모두 요구하였다 볼 수 있을 것이다. ‘표현’은 ‘이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표현 활동에 이해 활동이 관여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본고에서는 해당 활동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주목하였다. 참고로 본고에서는 이 활동을 ‘(4) 관용 표현을 활용하여 문장 만들기’ 활동으로 유형화하였다(〈표 3〉 참조).

적으로 많이 보인다(〈표 2〉, 〈표 3〉 참조).

다음에서 설명하는 말이 무엇인지 주어진 낱자를 활용하여 해당하는 말을 써 보자.

① 표르표르 ⇨

⑥ Lㄱ흥ㄷ ⇨

② ㅅㄱㅅㄱ ⇨

⑦ ㄱL흥ㄷ ⇨

... (하략) ...

**어휘 설명**

01 나뭇잎이나 나비 따위가 가볍게 계속 날아다니는 모양. “이따금 나비들이 ○○○○ 날아들어 꽃 위를 맴돌기도 했다.”

... (하략) ...

〈그림 5〉 뜻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회상하기 활동의 예 (E 교과서, 2학기 44쪽)

〈그림 5〉는 뜻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회상하도록 하는 활동으로서, 특히 ‘통제 표현 어휘’와 관련된 활동이다. Laufer(1998)에서는 ‘표현 어휘’<sup>19)</sup>에는 ‘통제 표현 어휘’와 ‘자유 표현 어휘’가 있는데, 통제 표현 어휘는 외부적 자극에 의해 유도된 어휘라면, 자유 표현 어휘는 표현 주체가 자신의 의지로 사용한 어휘를 말한다고 하였다. Laufer(1998)를 참고할 때, 〈그림 5〉의 활동은 어휘의 의미와 초성 정보라는 자극에 의해 특정 어휘를 표현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표현 어휘 중 ‘통제 표현 어휘’와 관련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뜻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회상하도록 하는 활동은 통제 표현 어휘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어휘 표현 학습 활동에 해당된다.<sup>2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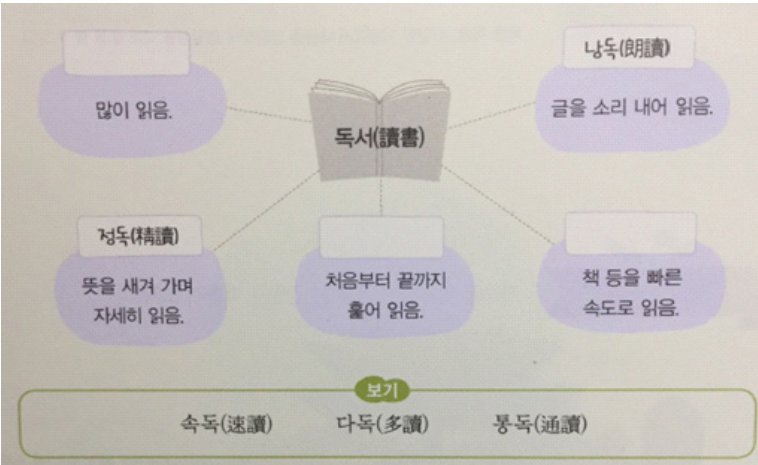
한편, 2015 교과서 중 일부 교과서에서는 하나의 학습 활동 안에 어휘

19) 어휘는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해 어휘는 자기가 직접 말과 글에서 표현하지는 못해도 그 의미나 용법을 알고 있는 어휘를 말하고, 표현 어휘는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에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어휘를 말한다(김광해, 1993; 강보선, 2013 참조).

20) ‘이해 어휘’와 ‘어휘 이해 학습 활동’의 관계, ‘표현 어휘’와 ‘어휘 표현 학습 활동’의 관계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룬다.

이해 활동과 어휘 표현 활동이 함께 다루어지는 경우도 보인다.

'독서'와 관련된 단어의 뜻을 참고하여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고, 독서 일기를 완성해 보자.



☆ 나의 독서 일기

오늘은 시집을 읽었다.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운율을 살려 시를 ( )했다.  
 시를 읽을 때에는 ( )보다는 천천히 내용을 음미하며 읽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하략)...

<그림 6> 어휘 이해 활동과 어휘 표현 활동이 함께 있는 어휘 학습 활동의 예(C 교과서, 1학기 79쪽)

<그림 6>은 뜻풀이와 단어를 연결하는 활동(어휘 이해 활동)과 해당 단어를 문장 속 빈칸에 넣어 보는 활동(어휘 표현 활동)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한 학습 활동 안에 두 가지 활동이 동시에 다루어지고 있다.

## 2. 학습 활동의 성격에 기반한 어휘 학습 활동 분석

1절의 논의를 토대로 2015 교과서의 어휘 학습 활동(<표 2> 참조)을 그

성격에 따라 ‘어휘 이해 학습 활동’과 ‘어휘 표현 학습 활동’으로 나누어 상대적 비율을 구해 보면 <표 4>와 같다(각 활동을 1로 계산하되, 한 학습 활동 안에 어휘 이해 활동과 어휘 표현 활동이 함께 있으면 각각을 0.5로 계산함).

**<표 4> 어휘 이해 활동과 어휘 표현 활동의 비율(%)**

교과서	어휘 이해 활동 수(비율)	어휘 표현 활동 수(비율)	계
A	19(66)	10(34)	29
B	12(50)	12(50)	24
C	10.5(66)	5.5(34)	16
D	13(72)	5(28)	18
E	2(25)	6(75)	8
F	15(83)	3(17)	18
G	8(100)	0(0)	8

<표 4>를 보면 B 교과서는 어휘 이해 활동과 어휘 표현 활동의 비율이 동일하고, E 교과서는 어휘 표현 활동이 어휘 이해 활동보다 비율이 높다. 그러나 나머지 교과서들은 어휘 이해 활동의 비율이 훨씬 높은데, 특히 G 교과서는 모든 어휘 학습 활동이 어휘 이해 활동에 속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2015 교과서의 다수는 어휘 학습 활동이 이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교과서의 어휘 학습 활동이 이해에 치중되어 있으면 어휘 표현 능력을 기르기가 어렵다. 어휘 표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습자가 ‘표현 어휘’를 많이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어휘 이해 활동으로는 표현 어휘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표현 어휘를 늘리기 위해서는 학습한 어휘를 다양한 문맥에서 표현해 보는 활동과 의미에 부합하는 어형(語形)을 회상하는 활동이 중요한데(강보선, 2013), 이는 모두 어휘 표현 활동과 관련된 것들이다. 따라서 말과 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어휘를 늘림

으로써 어휘 표현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어휘 이해 활동과는 다른 방식의 활동, 즉 어휘 표현 활동이 필요하다.<sup>21)</sup>

요컨대, 학습자의 어휘능력을 균형 있게 향상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어휘 학습 활동이 이해 중심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며 어휘 이해 활동과 어휘 표현 활동이 균형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어휘 표현 활동을 E 교과서에 서처럼 ‘뜻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회상하기’와 같은 활동만으로 구성해서는 안 되며<sup>22)</sup> 학습 어휘를 말이나 글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구안해야 한다.

어휘 학습 활동에 어휘 표현 활동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하여 C 교과서의 어휘 학습 활동 구성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C 교과서는 16개 중 9개의 어휘 학습 활동에서 어휘 이해와 어휘 표현을 함께 요구함으로써 어휘 이해와 어휘 표현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하였다.<sup>23)</sup> 이처럼 교과서에서 어휘 학습 활동을 제시할 때는 어휘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어휘를 말과 글에서

21) 임성규(2000: 57)에서도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는 언어 사용이나 사고 과정, 교육 방법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표현 어휘를 신장하는 방안은 이해 어휘 신장 교육 방법과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22) E 교과서의 어휘 표현 활동은 ‘뜻풀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회상하기’ 활동에 국한되어 있다.

23) 교과서의 활동 지시문을 그대로 가져오면 다음과 같다.

- ‘시작’과 관련된 한자 성어와 속담의 뜻을 알맞게 연결하고, 빈칸에 적절한 말을 넣어 보자.
- ‘모양’을 흉내 내는 단어와 그 뜻을 확인하고, 빈칸에 적절한 말을 넣어 보자.
- ‘독서’와 관련된 단어의 뜻풀이를 참고하여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고, 독서 일기를 완성해 보자.
- ‘글쓰기’와 관련된 단어와 그 뜻을 확인하고, 빈칸을 알맞게 채워 보자.
- ‘-거리다’의 뜻을 바탕으로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보기>에서 찾고, 아래의 대본을 알맞게 완성해 보자.
- ‘토의’와 관련된 용어와 그 뜻을 확인하고, 빈칸을 알맞게 채워 보자.
- ‘면담’과 관련된 단어들을 살펴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보자.
- ‘예측’과 관련된 단어 중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찾고, 그 뜻을 사전에서 조사하여 나의 어휘 사전을 만들어 보자.
- ‘귀’와 관련된 관용 표현의 뜻을 알아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일기를 완성해 보자.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학습자의 어휘 능력을 균형 있게 향상해야 할 것이다.

## IV. 내용 층위에서의 어휘 학습 활동 분석

이 장에서는 어휘교육의 내용과 관련하여 어휘 학습 활동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하여 1절에서는 단어와 관용 표현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는지를, 2절에서는 학습 단어와 의미 관계를 맺는 단어를 함께 다루고 있는지를, 3절에서는 학습 단어와 관련된 다양한 어휘 지식을 다루고 있는지를 분석한다.<sup>24)</sup>

### 1. 단어 및 관용 표현 관련 어휘 학습 활동 분석

흔히 어휘능력을 단어와만 관련지어 생각하기 쉽지만 어휘능력은 단어와 관련된 어휘능력뿐만 아니라 관용 표현과 관련된 어휘능력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김광해(1993: 306)에서는 어휘력을 양적 능력과 질적 능력으로 구분하고, 질적 능력에 단일 어휘소의 의미와 관용적 어휘소(속담, 속어, 연어, 사자성어 등)의 의미를 중요하게 다루었다. 구본관(2011 ㄱ)에서도 학습자가 좋은 머릿속 사전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휘교육의 목표라고 하면서 우리의 머릿속 사전에 단어뿐만 아니라 관용구, 속담, 연어 등도 등재 단위가 될 수 있다고 하여 관용 표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들 논의에 따

---

24) 어휘교육의 내용은 그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에 주목해서 어휘 학습 활동을 분석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어휘교육의 내용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김광해, 1993; 신명선, 2007; 신명선, 2009; 구본관, 2011 ㄱ; 강보선, 2013; 구본관 외, 2014; 이기연, 2014; Nation, 2013)을 참고하여, 어휘 학습 활동 수준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유의미한 내용이라고 생각한 것들을 선별하였다.

르면 어휘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단어만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속담, 속어, 연어, 사자성어 등의 관용 표현<sup>25)</sup>도 함께 학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2015 교과서의 어휘 학습 활동은 주로 단어만을 학습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표 5〉 단어 학습 활동과 관용 표현 학습 활동의 비율(%)

교과서	단어 학습 활동 수(비율)	관용 표현 학습 활동 수(비율)	계
A	25(86)	4(14)	29
B	22(92)	2(8)	24
C	13(81)	3(19)	16
D	17(94)	1(6)	18
E	8(100)	0(0)	8
F	17(94)	1(6)	18
G	8(100)	0(0)	8

〈표 5〉를 보면 D, F 교과서는 어휘 학습 활동에서 한 번만 관용 표현을 다루었고, E, G 교과서는 관용 표현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 다른 교과서들도 관용 표현 학습 활동의 수가 많지 않음을 볼 때 2015 교과서의 어휘 학습 활동이 단어를 교수·학습하는 데 치중할 뿐 관용 표현을 가르치는 데는 소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관용 표현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재적소에

25) 관용 표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김광해(1993)에서는 속담, 속어, 연어, 사자성어 등을 포함하였고, 심재기(2003)에서는 속어(복합어), 은어, 비속어, 비유어와 어구 및 문장 차원의 속담, 고사성어, 격언, 인사말을 포함하였으며, 민현식(2003)에서는 고사성어, 유행어, 관용어구(속어), 수수께끼, 속담, 표어, 설화(고전 설화, 현대 유행담)를 제시한 바 있다. 본고는 관용 표현의 범위를 정치하게 논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므로 관용 표현의 범위에 대해서는 따로 한정하지 않되 최소한 속어, 속담, 연어, 사자성어 등은 관용 표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 2015 교과서에서도 관용 표현에 이들 4가지가 주로 다루어지고 있다.

사용하는 것은 어휘능력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휘 학습 활동에서 관용 표현이 비중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요컨대 학습자의 어휘능력을 종합적으로 길러 주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어휘 학습 활동이 단어의 학습에 그쳐서는 안 되며 관용 표현도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 2. 의미 관계 관련 어휘 학습 활동 분석

어휘교육에서는 단어의 의미 관계를 다루는 것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여 왔다. 김광해(1993: 306)에서는 어휘력의 질적 능력에 ‘어휘소 사이의 연관성(유의관계, 반의관계, 공기관계)’에 대한 이해’도 중요함을 언급하였고, 신명선(2009)에서는 단어의 의미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어휘 내향과 어휘 외향을 함께 알아야 하는데 어휘 외향에 동의, 반의, 상하의 관계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단어의 의미 관계는 학습 단어가 머릿속에 효과적으로 저장되는 데도 영향을 끼친다. 신명선(2009: 99)에 따르면 학습자가 어떤 단어를 학습하면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독립적으로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일정한 체계를 형성하여 저장된다. 구본관(2011: 47)에서도 어휘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머릿속에 포함된 어휘들이 서로 잘 연결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서로 망(網)을 이루고 있는 반의어, 유의어, 상하위어, 부분어, 동위어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그러나 2015 교과서에서는 단어를 개별적으로 다룰 뿐, 학습 단어와 의미 관계를 맺는 단어(반의어, 유의어, 상하위어)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

〈표 6〉 단어의 의미 관계 관련 어휘 학습 활동의 수

교과서	반의어	유의어	상하위어
A	0	0	0



B	2 <sup>26)</sup>	0	0
C	2 <sup>27)</sup>	0	0
D	0	0	0
E	0	0	0
F	0	0	0
G	0	0	0

〈표 6〉을 보면 B, C 교과서만 반의어를 활용한 어휘 학습 활동을 일부 제시하고 있을 뿐, 다른 교과서에서는 의미 관계의 핵심에 해당하는 반의어, 유의어, 상하위어를 활용한 어휘 학습 활동이 전혀 없다. 이로 볼 때 2015 교과서에서는 어휘 학습 활동이 개별 단어를 교수·학습하는 데 치중할 뿐 단어의 의미 관계를 활용한 교수·학습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전술하였듯이 단어를 개별적으로 학습하는 것은 어휘능력의 측면에서도, 어휘 학습의 측면에서도 좋지 않기 때문에 학습 단어와 의미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단어들도 함께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요컨대, 학습자의 어휘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어휘 학습 활동이 단어를 개별적으로 다루기보다는 학습 단어와 의미 관계를 맺는 반의어, 유의어, 상하위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 3. 어휘 지식 관련 어휘 학습 활동 분석

단어를 안다는 것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

- 
- 26) ‘〈보기〉를 참고하여, 제시된 낱말의 반의어를 찾고 사전에서 그 뜻을 찾아 써 보자.’, ‘〈보기〉의 두 낱말(얇다, 기늘다)을 활용하여 다음 문장들을 완성해 보자.’라는 활동이다.
- 27) “‘언어의 본질’과 관련된 단어와 그와 반대되는 의미의 단어를 비교하며, 아래의 문장에서 적절한 단어를 골라 보자.’, ‘다음 단어들의 반의어를 〈보기〉에서 찾고, 두 단어의 뜻 차이를 고려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자.’라는 활동이다.

니다. 단어의 의미 이해는 단어 이해의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될 수 없다. 일찍이 단어 학습의 내용이 단어의 의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단어와 관련된 음운, 형태, 통사, 의미, 화용 지식을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 여러 연구자에 의해서 논구되어 왔다(신명선, 2007; 구본관, 2011 ㄱ; 강보선, 2013; 구본관 외, 2014; 이기연, 2014; Nation, 2013). 그러나 2015 교과서의 어휘 학습 활동은 단어와 관련된 다양한 어휘 지식<sup>28)</sup> 중에서 단어의 의미만을 유독 강조하고 있다.<sup>29)</sup>

〈표 7〉 어휘 지식별 관련 어휘 학습 활동의 수

교과서	형태		구조	의미	통사	화용	기타 <sup>30)</sup>
	발음	표기					
A	1	5	1 <sup>31)</sup>	22	0	0	0
B	0	0	3 <sup>32)</sup>	23	0	0	0

28) 이기연(2014)에서는 어휘능력을 구성하는 ‘지식’을 ‘어휘 내적 지식’과 ‘어휘 외적 지식’으로 나누었다. 본고의 3절 내용은 어휘 내적 지식과 관련이 있는데, 그에 따르면 어휘 내적 지식은 의미(사전적 의미, 백과사전적 의미), 구조(형태소(어원 정보, 한자 정보), 품사 및 범주 정보), 형태(발음, 표기), 화용으로 구분된다. 본고에서는 여기에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통사’와 ‘기타’를 〈표 7〉에 추가하였다.

29) 〈표 7〉에서 한 어휘 학습 활동이 단어와 관련된 여러 어휘 지식을 다룰 경우 각 지식을 1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어휘 지식별 관련 어휘 학습 활동 수의 ‘합계’가 다른 〈표〉에서 제시된 ‘합계’보다 많을 수 있음을 밝혀 둔다.

30) 단어와 관련한 기타 지식에는 다양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예컨대, 주세형(2005)에서 단어 선택과 관련하여 언급한 문체적 효과, 태도(가치 평가), 언어 공동체의 이데올로기 등도 기타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31) 단어의 어종(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에 대한 지식을 묻는 활동이다.

32) ‘다음 한자(漢)를 활용한 낱말들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고, 그 낱말의 뜻을 써 보자.’, ‘〈보기〉(까마귀+까치 = 까막까치)와 같이 두 낱말의 뜻이 합쳐져 생겨난 낱말을 빈칸에 써 보자.’, ‘‘한-’이 각각 어떤 뜻을 더하는지 연결해 보고, 이와 같은 뜻을 더하는 ‘한-’이 포함된 낱말을 더 찾아보자.’라는 활동이다.

C	0	0	1 <sup>33)</sup>	16	0	0	0
D	0	10	0	8	0	0	0
E	0	0	0	8	0	0	0
F	0	0	8 <sup>34)</sup>	18	0	0	0
G	0	0	0	8	0	0	0

〈표 7〉을 보면, 단어의 발음은 A 교과서에서만, 표기는 A와 D 교과서에 서만 다루고 있다. 단어의 구조는 A, B, C, F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으나 단어의 통사 및 화용 관련 지식은 어느 교과서에서도 다루지 않는다. 반면, 단어의 의미는 D 교과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으며, E와 G 교과서에서는 단어의 의미만을 학습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로 볼 때, 2015 교과서는 어휘 학습 활동을 통해 단어의 의미를 학습하는 것에 치 중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것은 어휘 학습에서 필수적인 것임에 틀림없지만 단어의 의미만 안다고 하여 해당 단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학습 단어에 대해 다양한 어휘 지식을 매번 다룰 수는 없을지라도, 단어에 따라서는 단어의 형태, 구조, 통사, 화용과 관련된 지식을 더불어 학습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을 학습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학습자는 단어 학습은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오해를 하게 된다. 따라서 교과서의 어휘 학습 활동에서는 단어의 의미는 물론이고 단어의 형태, 구조, 통사, 화용 지식 등도 적극적

33) “‘면담’과 관련된 단어들을 살펴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보자.”라는 활동인데, 그 과정에서 ‘면(面)’과 ‘담(談)’이라는 한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4) “‘승부(勝負)’와 같이, 반대되는 의미끼리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들의 뜻을 찾아 빠르게 연결해 봅시다.’, ‘다음은 ‘합리(合理)’의 ‘합(合)’이 포함된 단어와 ‘리/이(理)’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합리’를 풀이한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하는 단어와 그 뜻풀이를 빠르게 연결해 봅시다.’ 등과 같은 활동으로서, 단어를 구성하는 한자 정보를 명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 V. 교수·학습 방법 층위에서의 어휘 학습 활동 분석

어휘를 교육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sup>3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국어 교과서에서는 단어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학습자에게 단어의 의미를 직접 알려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신명선(2007)에 따르면 단어의 의미 혹은 개념을 가르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진정으로 어떤 단어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행이 필요한데, 그 방법 중 하나가 탐구 활동과 메타언어 활동이다.

어휘를 대상으로 한 탐구 활동은 임지룡(2010), 이관규(2011), 구본관(2011 ㄱ)에서도 강조된 바 있다. 임지룡(2010)에서는 어휘 교수·학습에서 교수자의 주입식 교수와 학습자의 수동적 학습을 탈피하고 탐구 학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이관규(2011)에서는 탐구 학습이 단어의 의미는 물론 단어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구본관(2011 ㄱ)에서는 탐구 학습을 통해 어휘적 민감성도 기를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신명선(2004 ㄴ)은 언어를 의도적으로 점검, 조절, 반성하는 인지 활동인 메타언어 활동이 단어의 의미 그 자체를 의도적, 의식적으로 주

---

35) 손영애(1992: 42)에서는 어휘 지도 방법으로 낱말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방법, 낱말이 쓰인 문맥을 통해 낱말의 의미를 추론하게 하는 방법, 서로 관련되는 일군의 낱말들의 공통되는 의미 요소를 분석하는 방법, 하나의 주제와 관련되는 여러 어휘를 찾아보고 의미 지도를 그리는 방법, 낱말의 개념 구조를 도식화하는 방법 등을 소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어휘 교육 방법과 관련해서는 김광해(1993), 이재승(1996), 이충우(1996), 임성규(2000), 구본관 외(2014)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목하게 만들며, 학습자의 사고력 신장에 기여하고, 언어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였다. 이처럼 어휘교육에서 단어의 의미를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방법보다는 단어에 대해 탐구하고 메타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단어 학습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이 계속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2015 교과서의 어휘 학습 활동은 단순히 단어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교수·학습 방법만 주로 활용되고 있다.<sup>36)</sup>

〈표 8〉 의미 전달 및 탐구/메타언어 관련 어휘 학습 활동 비율(%)

교과서	의미 전달 위주의 학습 활동 수 <sup>37)</sup> (비율)	탐구/메타언어 활동 관련 학습 활동 수(비율)	계
A	20(69)	0(0)	29
B	15(63)	0(0)	24
C	14(88)	0(0)	16
D	6(33)	1(6)	18
E	8(100)	0(0)	8
F	16(89)	0(0)	18
G	8(100)	0(0)	8

〈표 8〉을 보면, 2015 교과서의 어휘 학습 활동은 의미 전달 위주의 어휘 학습 활동 비율이 높고, 탐구 활동 또는 메타언어 활동의 성격을 지닌 어휘 학습 활동은 D 교과서 이외는 없다.<sup>38)</sup> 이로 볼 때 2015 교과서에서는 의미를

36) 〈표 8〉의 비율은 교과서의 전체 어휘 활동 수에 대해 각각의 학습 활동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37) 어휘 학습 활동에서 단어의 의미가 명시적으로 제시된 학습 활동의 수를 가리킨다.

38) D 교과서의 활동도 전형적인 탐구 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활동은 “충격을 먹다.”에 쓰인 ‘먹다’와 같은 뜻의 ‘먹다’를 쓴 표현을 〈보기〉에서 찾아보라는 활동으로 〈보기〉에 ‘겉을 먹다, 밥을 먹다, 일등을 먹다, 나이를 먹다’를 제시하고 있다. 학습자는 ‘충격을 먹다’에 쓰인 ‘먹다’의 의미와 〈보기〉에 사용된 ‘먹다’의 의미를 파악한 후 서로 비교해 보아

전달하는 교수·학습 방법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단어의 의미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법보다는 학습 단어와 관련된 탐구를 하거나 학습 단어와 관련된 의미 관계를 활용하여 메타언어 활동을 하는 것이 단어를 학습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다. 따라서 교과서의 어휘 학습 활동에서는 단어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학습자가 학습 단어를 대상으로 탐구 활동을 하거나 메타언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 VI. 맺음말

어휘를 교과서의 낱개나 처마를 통해서만 가르쳐서는 학습자의 어휘능력을 향상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최근의 국어 교과서에서는 어휘 학습 활동란을 별도로 설정하고 다양한 어휘 학습 활동을 통해 어휘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서의 어휘 학습 활동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교과서 집필 지침이 없고 어휘 교수·학습은 검정 심사의 대상도 아니다 보니 교과서마다 어휘 학습 활동의 양과 질적인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점을 문제의식으로 삼은 본고에서는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교과서의 어휘 학습 활동이 지니는 주요 문제점을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의 층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2015 교과서의 어휘 학습 활동이 대체로 이해 중심, 개별 단어와 의미 중심, 의미 전달 중심의 어휘 학습 활동에 치중된 경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편향된 어휘 학습 활동은 학습자의 어휘능력이

---

야 한다는 점에서 탐구 활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뿐이다.

균형 있게 향상되지 못하게 한다는 점도 문제이지만, 학습자에게 어휘 학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학습자는 한 쪽으로 치우친 어휘 학습 활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휘는 표현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이라는 생각, 관용 표현은 굳이 학습할 필요가 없고 단어만 학습하면 된다는 생각, 단어의 의미 관계는 중요하지 않고 단어를 개별적으로 학습하면 된다는 생각, 단어와 관련된 다른 어휘 지식은 학습할 필요가 없고 단어의 의미만 학습하면 된다는 생각, 단어는 탐구와 메타활동의 대상이기보다는 의미만 전달 받으면 어휘 학습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학습자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각 교과서에서 어휘 학습 활동을 제시할 때 다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어휘 학습 활동은 어휘 이해 활동과 어휘 표현 활동이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 어휘 이해 활동으로는 어휘 이해 능력만 향상되기 때문에 어휘 표현 활동을 통해서 학습자의 어휘 표현 능력을 함께 향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어휘 학습 활동의 내용을 단어로 한정하지 말고 관용 표현도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학습자가 단어뿐만 아니라 관용 표현을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자의 어휘능력을 종합적으로 향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어휘 학습 활동의 내용을 개별 단어로 한정하지 말고 의미 관계를 맺는 단어들도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학습 단어와 의미 관계를 맺는 단어를 함께 학습하는 것이 학습자의 어휘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므로 어휘 학습 활동에서 학습 단어의 반의어, 유의어, 상하위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어휘 학습 활동의 내용으로 단어의 의미만을 강조하지 말고 단어와 관련된 다른 어휘 지식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단어를 안다는 것은 단어의 의미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단어의 형태(발음, 표기), 구조, 의미, 통사, 화용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아는 것임을 유념하고 이를 어휘 학습 활동

의 내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어휘 학습 활동에 탐구 및 메타언어 활동과 같은 교수·학습 방법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학습 단어를 명시적으로 탐구하고 학습 단어에 대해 점검, 조절, 반성하는 기회를 가질 때 단어를 더 잘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단어의 의미만을 직접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단어를 탐구하고 메타언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과서의 어휘 학습 활동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교수·학습할 수 있는 어휘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 교과서의 어휘 학습 활동은 학습자에게 특정 어휘를 직접 교수·학습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휘를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지를 알려 주는 안내자 역할이 더 크다고도 할 수 있다. 즉, 학습자는 교과서에서 어휘를 교수·학습하는 방식을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익히게 되고 이를 개인적으로 다른 어휘를 학습할 때 자연스럽게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어휘 학습 활동란은 단순히 쉬어가는 코너가 아니라 어휘교육의 이론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개발된 어휘 학습 활동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19.4.30. 투고되었으며, 2019.5.1. 심사가 시작되어 2019.6.6.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1. 자료

- 김진수·이경옥·박채형·이경숙·박현숙·박수진·강양희·박상희·정대승·김봉규·오경준·강송연(2017), 『중학교 국어(1-1, 1-2)』, 서울: 비상교육.
- 남미영·허철구·공규택·김아진·류상하·박경하·백덕현·양연규·여의기·이푸르니·임성규·임영규·전혜옥·정태기·정형근·황재진(2017), 『중학교 국어(1-1, 1-2)』, 서울: (주)교학사.
- 노미숙·주진택·안수진·김호태·신해연·황희중·소정섭·장선영·강영미·류신행·노수경(2017), 『중학교 국어(1-1, 1-2)』, 서울: 천재교육.
- 류수열·전명재·이동민·최동진·정지영·강호정·박용진·나미나·박인규·박수현(2017), 『중학교 국어(1-1, 1-2)』, 서울: (주)금성출판사.
- 박영목·정호웅·이승환·성난주·안순숙·임지은·남영민·예가현·배재성·이정분·천보영(2017), 『중학교 국어(1-1, 1-2)』, 서울: 천재교육.
- 신유식·정미선·이필규·김영찬·전경원·윤인희·박선주·김정희·이은화·나단비(2017), 『중학교 국어(1-1, 1-2)』, 서울: 미래엔.
- 이도영·강경일·강애라·김미영·김수란·김영석·김외곤·김태은·박승환·양은희·오윤주·이지영·이진경·한명숙(2017), 『중학교 국어(1-1, 1-2)』, 파주: 창비.
- 이삼형·김창원·정재찬·최홍원·김근수·이정원·김서경·오요한(2017), 『중학교 국어(1-1, 1-2)』, 서울: 지학사.
- 이은영·권정아·박성희·허단비·이민희·이은정(2017), 『중학교 국어(1-1, 1-2)』, 서울: 동아출판.

### 2. 논저

- 강보선(2013), 「표현 어휘 신장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구본관(2011 ㄱ), 「어휘교육의 목표와 의의」, 『국어교육학연구』 40, 27-59.
- 구본관(2011 ㄴ), 「어휘교육의 이론과 실제」, 『우리말교육현장연구』 5(2), 49-94.
- 구본관·신명선·서혁·이도영·민병곤·김봉순·원진숙·이관규·김정우·이경화·전은주·김창원·강보선·권순희·송영빈·박동열·신동광·김호정·김중신·조형일·이기연(2014), 『어휘교육론』, 서울: 사회평론.
- 김광해(1993), 『국어 어휘론 개설』, 서울: 집문당.
- 민현식(2003), 「관용 표현의 범위와 유형에 대한 재고」, 『한국어 의미학』 12, 17-50.
- 박형우(2012), 「국어 어휘 교육 개선 방안 연구」, 『청람어문교육』 46, 407-433.
- 손영애(1992), 「국어 어휘 지도 방법의 비교 연구 : 한자 이용 여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명선(2004 ㄱ), 「어휘교육 목표로서의 어휘능력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 113, 263-296.
- 신명선(2004 ㄴ), 「어휘에 관한 메타언어 활동의 의의에 대한 연구」, 『어문연구』 32(4), 377-400.
- 신명선(2005), 『어휘 교육 변천사』, 『국어교육론』 2, 서울: 한국문화사.
- 신명선(2007), 「“단어에 대한 앎”의 의미에 기반한 어휘교육의 방향 설정 연구」, 『국어교육』 124, 349-386.
- 신명선(2008), 『의미, 텍스트, 교육』, 서울: 한국문화사.
- 신명선(2009), 「국어 표현 과정에서 작용하는 어휘 사용 기제와 그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어 의미학』 29, 91-131.
- 신명선(2017), 「어휘능력의 개념과 자장(磁場), 그리고 교육의 실제성」, 『문법 교육』 29, 169-214.
- 심재기(2003), 「한국 문화와 관용 표현」, 『한국어 의미학』 13, 1-11.
- 이관규(2011), 「문법 교육과 어휘 교육」, 『국어교육학연구』 40, 127-158.
- 이기연(2014), 「어휘 능력 평가의 지평 확대를 위한 소고」, 『한국어 의미학』 44, 171-197.
- 이재승(1996), 「어휘 지도 방법」, 『청람어문교육』 15, 162-182.
- 이충우(1996), 「어휘 교육과 교과서」, 『한국국어교육연구회논문집』 59, 37-67.
- 임성규(2000), 「표현 영역에서 어휘력 신장 방안 연구: 문단 전개법을 중심으로」, 『한국초등국어교육』 17, 57-88.
- 임지룡(2010), 「국어 어휘교육의 과제와 방향」, 『한국어 의미학』 33, 259-296.
- 주세형(2005), 「국어과 어휘 교육의 발전 방향」, 『독서연구』 14, 373-399.
- Laufer, B. (1998), “The development of passive and active vocabulary: Same or different?”, *Applied Linguistics* 19(2), 255-271.
- Nation, I. S. P. (2013),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어휘 학습 활동에 대한 비판적 고찰

—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강보선

본고는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교과서의 어휘 학습 활동이 지니는 문제점을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층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 결과 2015 교과서의 어휘 학습 활동이 이해 중심, 개별 단어와 의미 중심, 의미 전달 중심에 치우친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교과서의 어휘 학습 활동을 구성할 때에는 다음의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첫째, 어휘 학습 활동은 어휘 이해 활동과 어휘 표현 활동이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어휘 학습 활동의 내용을 단어로 한정하지 말고 관용 표현도 적극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셋째, 어휘 학습 활동의 내용을 개별 단어로 한정하지 말고 의미 관계를 맺는 단어들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넷째, 어휘 학습 활동의 내용을 단어의 의미로 한정하지 말고 단어의 형태(발음, 표기), 구조, 통사, 화용 지식도 적절히 다루어야 한다. 다섯째, 어휘 학습 활동에서 어휘 교수·학습 방법을 단어의 의미 전달에 한정하지 말고 탐구 활동과 메타언어 활동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핵심어 어휘교육, 어휘능력, 어휘 학습, 어휘 학습 활동, 국어 교과서

## A Critical Study of Vocabulary Learning Activities in Middle-School Korean Textbooks

— Focusing on the First-grade Korean Textbook Developed According to the 2015 Revised Korean Language Curriculum

Kang Bosun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goal, contents and instructional method of the vocabulary learning activities in the first-grade Korean language textbook that was developed according to the 2015 revised Korean language curriculum. The result of this study confirm the problem that the vocabulary learning activities in the 2015 textbooks are too narrowly focused on teaching understanding words, individual words and semantics, and transfer of meaning. The construction of vocabulary learning activities for future textbooks should therefore encompass the following: First, vocabulary learning activities should balance comprehension activities with expression activities. Second, vocabulary learning activities should not be limited to words but should also include idiomatic expressions. Third, vocabulary learning activities should not be limited to individual words but should also incorporate words that have semantic relations. Fourth, vocabulary learning activities should not be limited to a focus on the meaning only but should also include a focus on form (pronunciation, spelling), structure, syntax, and pragmatics. Fifth, vocabulary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should not be limited to simply the transfer of meaning but should also actively utilize inquiry-based and meta-language activities.

**KEYWORDS** Vocabulary Education, Lexical Ability, Vocabulary Learning, Vocabulary Learning Activities, Korean Textbook